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 거버넌스 완성”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위해 앞장

익산시 미래농정국, 농업회의소 설립 · 체험 지원센터 구축 등 올 추진방향 발표

익산시는 미래농정국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2018년도 미래농정 추진방향에 대해 정례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미래농정국(국장 윤희환)은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농민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범하여 농업현장의 소리를 농정에 반영한 농정역진 4개 분야 27개 과제를 선정,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들로부터 미래농정에 대한 큰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한해가 되었다고 본다.

이에 미래농정국에서는 그동안 다진 기초를 바탕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2018년 미래농정 추진방향을 설정하여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첫째,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업회의소’ 설립을 통해 농정거버넌스를 완성

해 나가겠다. 지난 18일 출범한 농업회의소 설립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역 설명회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행정적 절차를 지원해 2019년 3월 농업회의소를 설립하겠다. 또한 현장중심의 명예농업시장단 운영과 14개 지역 농축협과의 상생협력 사업 발굴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 성과가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둘째, ‘농촌체험관광 종합지원 센터’를 구축하고, 도농교류 활성화를 통해 활력이 넘치는 농촌마을을 만들어 가겠다. 개별 운영하던 익산시 농촌관광, 숙박, 체험시설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농촌체험관광 포털사이트’ 3월부터 운영하고, 농촌체험관광 지원조직을 육성해 농촌이 상상하여 농촌

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로 만들겠다.

셋째, ‘지역 푸드시스템’ 구축으로 먹거리 안전과 획기적인 로컬푸드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농식품부 혁신선도과제로 선정된 지역 푸드플랜 수립으로 익산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의 농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 이익이 지역에서 순환하며 가치를 더해가는 순환경제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넷째, ‘말(馬)산업 특구지정’으로 말(馬)산업을 우리시 신성장 축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다. 승마체험 수요 증가에 맞춰 2017년 선정된 공공승마장 및 승마길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특구지정을 통해 우량승용마 육성과 사료생산 기반조성, 말산업 체험관 건립을 추진해 농가의 신

소득원을 발굴하겠다.

다섯째, 공정하고 투명한 ‘농업 보조금 지원체계’를 마련해 미래농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겠다. 보조지원 소의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이익공유제와 보조사업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사전 공시제를 도입해 보조금 편중지원 및 특혜 논란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

윤희환 국장은 올해의 추진방향을 전하며 “2018년은 익산시 농정이 한 단계 도약하는 시기다. ‘농업인과 함께하는 농정 거버넌스’를 완성하고, 농가소득 향상과 농촌의 활력 증진,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미래농정국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사회서비스 전자 바우처 22개 사업 61억 투자

군산시는 올해 22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에 61억을 투입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사업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16개 사업(25억 원), 돌봄서비스 3개 사업(28억 원), 장애이동 가족지원 3개 사업(8억 원)이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란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사회서비스로 지역민들에게 양질의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며 그 비용을 전자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비스 이용대상자 모집은 연중 이뤄지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 소득기준은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가구 542만원) 또는 140%(4인 가구 632만6천원) 이하이며, 사업별 연령 가구특성 등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사업별로 우선순위(저소득 등)를 적용해 이용자를 선정하게 된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55억 원이 투자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으로 4천 9백여 명이 이용한 바 있으며, 올해 신규 사업으로 ‘형성년 재활승마 서비스’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군산=김관근 기자

원광대 화학과 석사과정 서정훈 씨 SCI급 저널 테트라헤드론 레터스 연구논문 게재

원광대학교 대학원 화학과 석사과정 서정훈 씨가 벤자민을 이용한 질소탄소 결합 형성 반응에 관한 기초 연구 논문을 SCI급 저널인 테트라헤드론 레터스(Tetrahedron Letters)에 주저자로 게재했다.

2018년 1월호에 게재된 이 연구 내용은 전이 금속 촉매가 존재하지 않는 반응 조건 하에서 질소탄소의 결합을 형성하는 반응을 개발한 것으로 값비싼 전이 금속과 위치 선택적인 지합기를 사용하는 기존 합성법과 다르게 개발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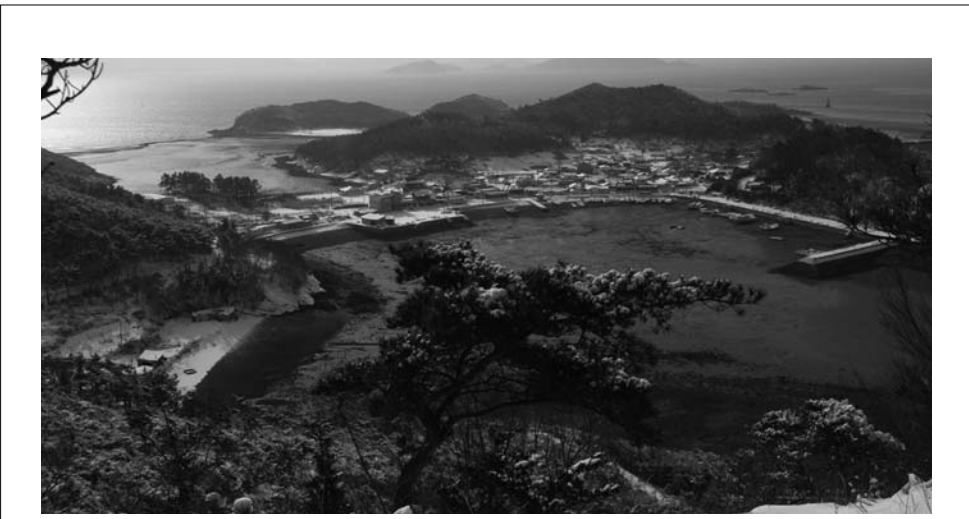


유기 화학적 합성법은 원자 경제적이고 온화한 반응 조건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일로 평가됐다.

특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이 금속 촉매가 존재하지 않는 반응 조건에서 비이온성 골격을 형성하는 유기 화학적 합성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어 향후 결과가 기대되고 있다.

서정훈 학생을 지도한 고해민 교수는 “국제 유명저널에 논문을 게재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2년간 석사 과정을 통해 연구의 기초능력을 배양하고 하나의 주제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이 같은 성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 구불길 중 신시도길은 본래 섬이었으나 33.9km의 세계 최장 빙조제 건설로 육지화된 신시도를 한 바퀴 둘러 걷는 길이다.

한국관광공사 주관 걷기 좋은 길 10선

군산 신시도길 ‘1월의 걷기 좋은 여행길’ 선정

군산 구불길 중 ‘신시도길(구불길)’이 한국관광공사 주관 1월의 걷기 좋은 여행길 10선에 선정되었다.

신시도길은 본래 섬이었으나 33.9km의 세계 최장 빙조제 건설로 육지화된 신시도를 한 바퀴 둘러 걷는 길이다.

신시도길 코스인 월영산에서 내려다보는 고군산군도의 풍광은 서해의 다도해라는 별칭이 아깝지 않은 절경을 드러낸다.

또한 신시도길 월영봉은 신라 말 어린 최치원의 글 읽는 소리가 중국에까지 들렸다는 전설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신비로움을 간

직한 길이기도 하다.

김성우 관광진흥과 과장은 “신시도에서 무녀도를 지나 선유도로 이어지는 고군산의 길을 잘 정비하여 군산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여행지로 추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익산고용노동지청,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창구 운영

익산고용노동지청에서는 익산세무서와 협의하여 부가세 신고기간까지 관내 2개 세무서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월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매월 13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16.4%)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익산지청에서는 자금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수혜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월말까지 현장 접수창구를 집중 운영할 계획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군산시는 내달 22일까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소형어선에 대한 소방 구명 및 항해안전장비를 지원하여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와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켜 어업의 구조개선 및 선진화를 위하여 추진된다.

시는 국비보조 사업비 1억9500만원을 확보하여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78대, 자동소화시스템 19대, 팽창식 구명조끼 252벌, 선박자동출항 단말기(V-Track) 27대 등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자는 5톤 미만 소형어선 소유 어업인이며, 팽창식 구명조끼는 연인어

선 소유 어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산관계법령 및 어선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자,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고남철 해양수산과장은 “해상에서 일어나는 어선사고는 사망·실종자 발생 등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대형사고가 많다며 “어업인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회담자는 시 해양수산과에 2월 22일까지 직접 방문하여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군산=김관근 기자

어린이 행복돌길

풍화경을 갖춘 동북아경제중심 명품도시 군산

어린이와 시민 모두 행복한 도시 군산!
 풍부한 문화 콘텐츠 근대 역사 문화도시!
 동북아 산업과 관광의 허브 군산·새만금!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다!!

군산 Dream Hub GUNSAN

군산시 GUNSAN CITY